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3층 상설 전시실에서.

# 전태일의 꿈,

##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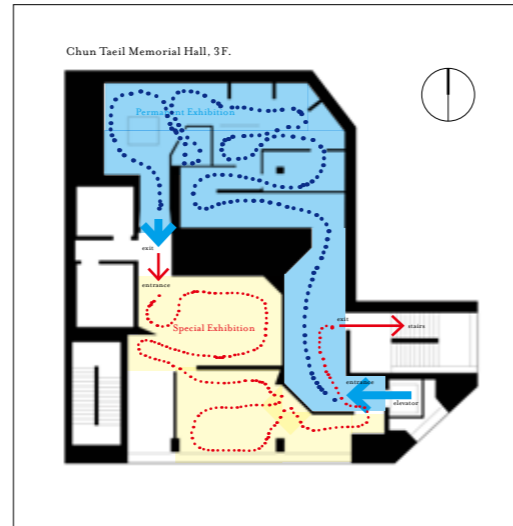
## 상설전 [전태일의 꿈, 그리고]

전태일기념관 상설 전시실 이음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1970년 스물세 살 전태일이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거 부당하고 외면당한 50여 년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한 발자 국을 내딛습니다. 청년 전태일의 아픔은 우리나라 노동 환 경에 대한 아픔이고 같은 시대를 살아온 우리 노동자의 고통이었습니 다. | 전태일을 다시 불러 봅니다. 가난과 어려 움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함께 경험하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힘든 동료와 이웃 을 향해 베풀었던 끊임없는 온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 다. 부당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전태일의 실천과 연대 그리 고 대안을 제시했던 그의 아름다운 꿈을 보여 주고 싶습니 다. | 청년 전태일의 따뜻한 마음과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과의 연대 그리고 함께하는 행동을 전시하고자 합니다. 시 대를 뛰어넘어 전태일과 어깨 걸고 현재의 우리 삶을 이야 기하며 함께 걸기를 희망합니다. 과거의 전태일에게서 오 늘의 전태일인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진정한 노동자 의 삶을 느끼며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전시를 위해 애 써 주신 많은 분들에게 고마운 인사 드립니다. | 고맙습니 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관장 이수호] ●



## Chun Taeil's Dream, And

In 1970, 23-year-old Chun Taeil stepped into our lives. Now, after five decades of rejections and denials, we are taking a new step forward. The pain endured by Chun Taeil as a young man represents not only the painful Korean labor environment, but also the pain of all workers who lived during those times. Today, we invoke Chun Taeil's name once again. We want to learn about and experience his attitude toward life – how he never became frustrated nor gave up even in the face of poverty and other difficulties. We want to have conversations about his endless compassion toward his colleagues and neighbors who were in worse situations. We want to introduce the ways in which Chun Taeil took action and developed solidarity among workers to challenge an unjust reality, as well as his beautiful dream which offered better alternatives. The Chun Taeil Memorial's exhibition will present Chun Taeil's warm heart as a young man, his solidarity with poor workers facing hardships, and the actions they initiated together. We wish to overcome the distance of time and walk shoulder-to-shoulder with Chun Taeil, discussing our lives together with him. By connecting the Chun Taeil of the past to the Chun Taeil of the present – who exists within each of us – we hope you can experience the authentic worker's life.●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3층 꿈터의 특별 전시실(노란색)과 상설 전시실(하늘색). 상설전을 먼저 본 다음, 특별전을 보게 되는 동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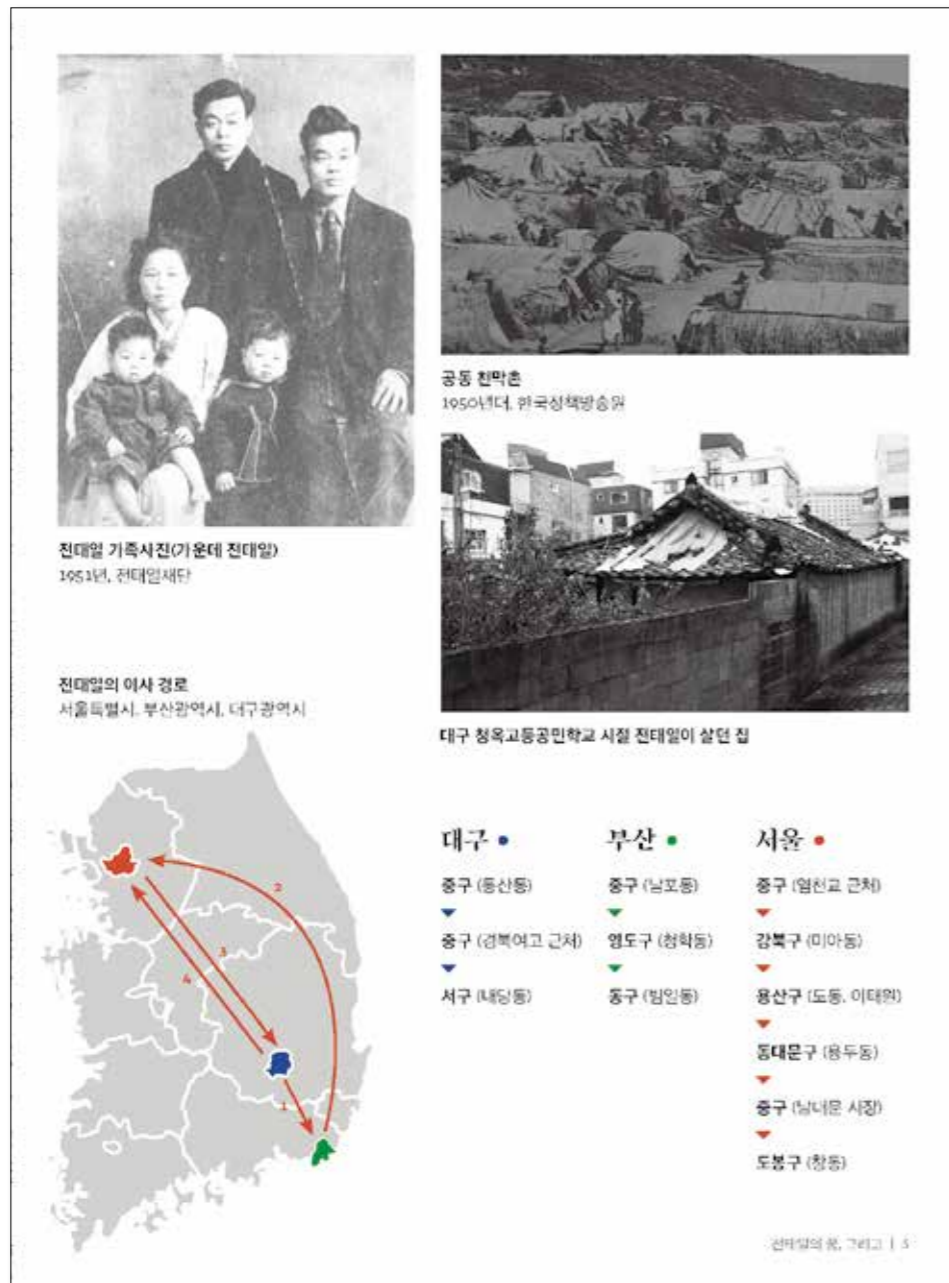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3층 상설 전시실 입구 '전태일의 어린 시절' 부분.

## Chun Taeil's Early Days

Chun's family was poor. He was forced to move from Daegu to Busan and then to Seoul after his father's business had failed. Even when he was young, he had to help the family by shining shoes and selling umbrellas and newspapers. Amidst such difficult circumstances, Chun remembers the time he attended Cheong-ok High Civic School as the happiest moment of his life.●

**전태일의 어린 시절** 전태일은 가난한 집안에서 고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대구와 부산, 서울을 오가며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고,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우산 장사, 구두닦이, 신문팔이 등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 전태일은 청옥고등공민학교 시절을 가장 행복한 때로 기억합니다.●





전태일기념관 상설전 (전태일의 꿈, 그리고) 한글리플릿에서, 디자인 : designLab 부렛.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3층 상설 전시실 입구 '전태일의 어린 시절' 부분.

## Chun Taeil's Perspective

Chun became a full-time garment worker at Pyounghwa Market at the age of 17. Despite his plan to learn skills in a stable workplace and take care of his family, the work environment of Pyounghwa Market was horrific and miserable. The young assistants (*sida*) suffered from low income in terrible condition and often starved. Chun often bought stuffed bread for these young girls with his bus fare, and he instead walked home which took more than two hours. ●

**전태일의 눈** 전태일은 17살에 본격적으로 평화시장의 봉제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정된 직장에서 기술을 배워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바람과는 달리 평화시장의 노동 현실은 비참하고 끔찍했습니다. 어린 시다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전태일은 자신의 버스를 털어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다 주고, 2시간 이상 걸어 집에 가기를 반복했습니다. ●





청계천 평화시장 앞  
1965년 8월 17일, 국가기록원



어린 시다와 함께(가운데 전태일)  
1968년경, 전태일재단

### 젓 쥐직의 실례임

“하루는 구두를 닦으러 돌아다니던 중 평화시장까지 온 나는 어느 맛춤집에서 시다를 구한다고 써 붙인 것을 보고 다음날 깨끗이 목욕을 한 후 다시 그곳에 갔다 (...) 한 달 월급 1,500원 이었다. 하루에 하숙비가 120원인데 일당 50원으로는 어렵도 없는 일이었지만 다니기로 결심을 하고 모자라는 돈은 아침 일찍 여관 손님들의 구두를 닦고 저녁 늦게는 겹과 휴지를 팔아 보충해야 했다.”

1965년 8월 25일 일기에서



### 플빵 나눔

“공장 한구석에서 잠을 자는 어린 시다들이 밤잠을 제대로 못 자는지 매일 오전 시간만 되면 꾸벅 꾸벅 졸면서 작업들을 하잖아요.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시다들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길래 제가 플빵 30개를 사서 여섯명에서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니 작업장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면서 오전시간에는 거뜬히 일들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올 때 차비가 없어서 걸어오느라 파출소에서 잤던 거예요.”

2006년 이소선 어머니 구술 기록에서

전태일의 꿈, 그리고 | 4

전태일기념관 상설전 (전태일의 꿈, 그리고) 한글리플릿에서, 디자인: designLab 부렛.



© (Suryuabang) Lee Jheeyung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3층 상설 전시실 입구 '전태일의 어린 시절' 부분.



## Sewing Factory in the Attics

다락방 봉제 공장 재현 공간 공장은 대부분 소규모로 노동자들은 1.5m도 되지 않는 낮은 천장 때문에 허리를 펴고 일 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



© (Suryuanbang) Lee Jheeyoung



© (Suryuanbang) Lee Jheeyung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3층 상설 전시실 '다락방 공장재현 공간' 입구.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3층 상설 전시실 '다락방 공장재현 공간' 내부.



© (Suryuanbang) Lee Jeeyoung

## Chun Taeil's Actions

The assistant workers suffered from long work hours, often stayed overnight in small workspaces. The sewing factories were built as one attic space on top of another, with ceilings so low that workers could not even stand up. The majority of workers had some type of disease and were often not even paid in full. To improve such a horrific work environment, Chun Taeil founded Babohoe (an association of garment cutters) and Samdonghoe to organize a more active struggle. In these associations, Chun studied the Labor Standards Act and conducted a work environment survey of Pyounghwa Market, which he submitted with a petition to the Labor Agency. When such efforts brought no improvements to the work environment, Chun decided to ceremonially burn the book of Labor Standards Act. ●

**전태일의 실천** 시다들은 햇볕이 들지 않고, 먼지가 심하게 날리며, 다락방을 덧대어 허리조차 펼 수 없는 좁은 작업장에서 장시간 노동, 밤샘 야간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태일은 ‘바보회’ 이후엔 ‘삼동친목회’를 결성, 노동 실태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화 형식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





평화시장 다락방 동제공장  
1973년, 형제신학불관(노무라 모토유키)



평화시장 다락방 동제공장  
1973년, 형제신학불관(노무라 모토유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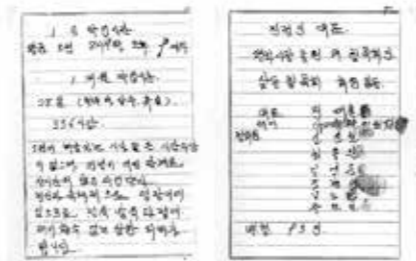
평화시장 노동실태 조사용 설문지  
1970년, 선태일재단



선태일의 바보회 회장 명함  
1969년, 선태일재단



평화시장 옥상에서 고뇌하는 선태일  
1968년, 선태일재단



평화시장 피복 제조업 종업원 근로조건 개선 진정서  
1970년 10월, 선태일재단

선태일기념관 상설전 (선태일의 꿈, 그리고) 한글리플렛에서 디자인 : designLab 부렛.



© (Suryuabang) Lee Jheeyung

아름다운청년 선태일기념관 3층 상설 전시실 '선태일의 실천' 부분.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3층 상설 전시실 '전태일의 실천' 부분.



© (Suryuanbang) Lee Jheeyung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3층 상설 전시실 '전태일의 실천' 부분에서 '태일피복'과 '전태일의 꿈' 공간 쪽을 보다.

## Model Company, TAEIL Apparel

**모범 업체 : 태일피복** 청년 전태일은 두 가지를 실천에 옮겼는데 첫째, 「근로 기준법」을 공부하는 것, 둘째, ‘모범 업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전태일이 기획했던 ‘모범 업체’는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획기적으로 바꾸면서도 생산성은 높고 판매도 잘 할 수 있는 회사를 구상한 것입니다. 회사 이름을 ‘태일피복’이라고 지었고, 25페이지짜리 사업 계획서도 만듭니다. 이 사업 계획서는 시장 조사에서부터 광고, 생산 제품, 임금, 복지 시설 등 오늘날에도 합리적이고 현실 가능한 계획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 때 전태일의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



© (Suryuanbang) Lee Jheeyoung





전태일기념관 상설전 (전태일의 꿈, 그리고) 영문 리플릿과 모범 업체 (태일피복) 소개 엽서. Photo © (Suryuanbang) Park Sangil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3층 상설 전시실 '태일피복' 공간.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3층 상설 전시실 '전태일의 실천' 공간과 '태일피복' 입구.

© (Suryuanbang) Lee Jheeyung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3층 상설 전시실 '태일피복' 공간에 전시된 「모범 업체 태일피복 사업 계획서」 사본.



© (Suryuanbang) Lee Jheeyung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3층 상설 전시실 '태일피복' 내부 공간.

## Chun Taeil's Dreams ①

**Lee Soseon, Mother of Chun Taeil** — Before Chun died, he asked his mother to finish what he had started. Accordingly, Lee Soseon later founded the Cheonggye Pibok Labor Union(Cheonggye Apparel Makers' Labor Union). However,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continued to oppress the union and arrested Lee Soseon in the 1970s. In the early 1980s, the Chun Doochan Administration ordered the dissolution of the union. Lee fought against the government and rebuilt the union by 1984, and the union was legalized after the Great Workers' Struggle of 1987. Lee Soseon lived her life as the "Mother of Workers" after the death of her son Chun Taeil.●

**전태일의 꿈 ① 이소선 어머니**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은 노동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전태일은 숨을 거두기 전, 어머니에게 자신이 못다 이룬 일을 이루어 달라 부탁했습니다. 이소선 어머니는 그의 뜻을 이어 청계피복노동조합을 창립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끊임없이 노조를 탄압하였으며 이소선 어머니를 구속하기까지 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청계피복노조에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이소선 어머니는 이에 맞서 싸웠고, 1984년 노조를 원상 복구하였으며,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조의 합법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소신 어머니



새마을노동교실 개관식 청계노조 조합원들  
1973년, 천태일재단



배앗간 사무실 앞에 대기하고 있는 청계피복노조원들  
1987년 7월 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박용수)



장례식을 찾아 회유하는 노동청 관계자들  
1970년 11월 16일, 동아일보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헌반식  
1987년 8월 1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박용수)



청계피복노조 사무실 탈환기념 및  
전진대회에서 격려하는 어머니  
1987년 7월 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박용수)

천태일의 삶, 그리고 | 4

천태일기념관 상설전 (천태일의 꿈, 그리고) 한글리플렛에서, 디자인 : designLab 부렛.



© (Suryuanbang) Lee Jheeyung

아름다운청년 천태일기념관 3층 상설 전시실 '천태일의 꿈 ① 이소신 어머니'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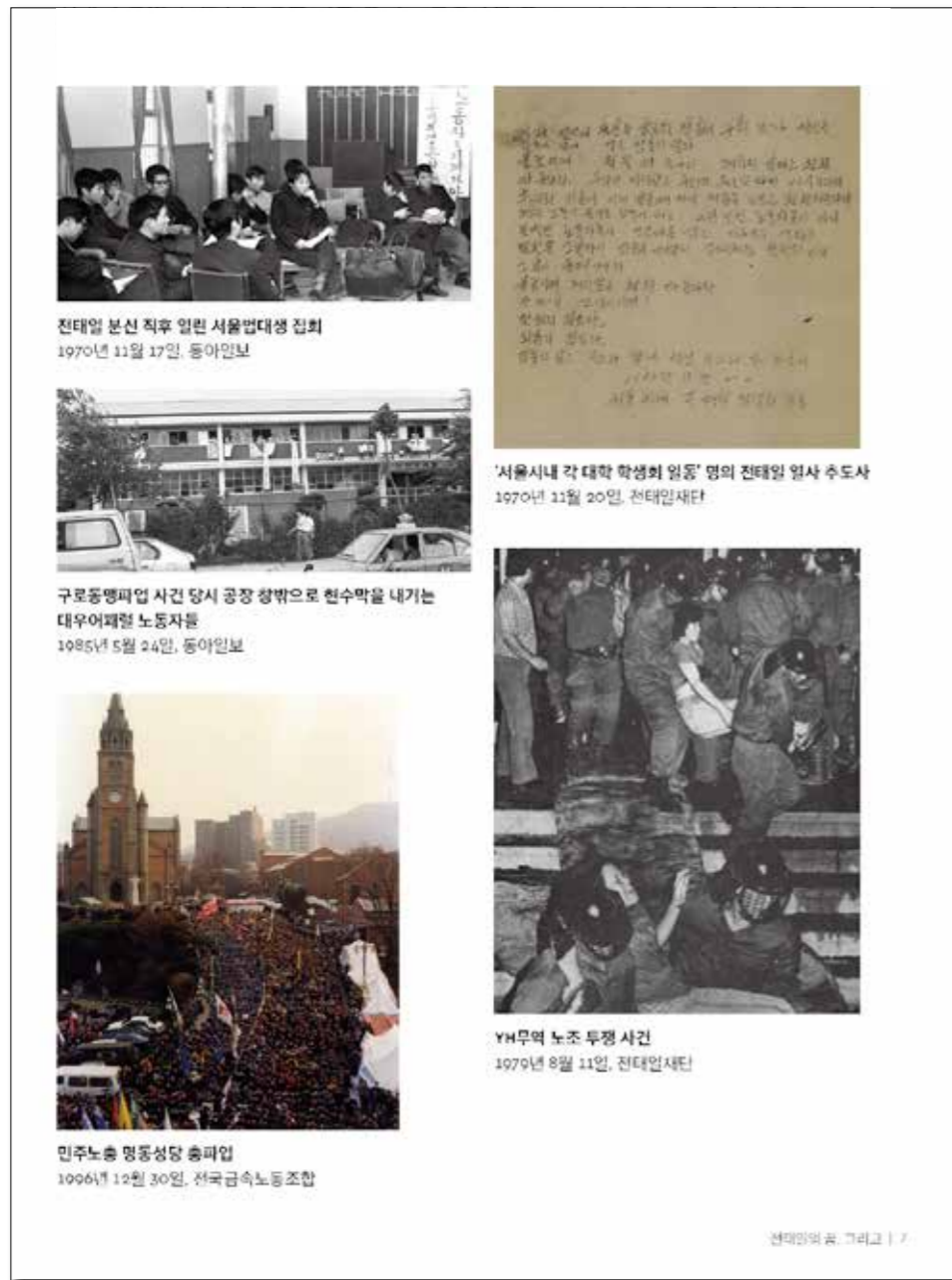
## Chun Taeil's Dreams ②

**Evolution of the Labor Movement** — Chun Taeil's resistance through self-immolation raised social awareness of the labor issues. Student and religious organizations expressed solidarity by issuing statements, holding assemblies, protests, and vigils. The efforts to organize free and democratic labor unions intensified in workplaces across the country.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attempted to curtail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but the YH Trading Company union and others continued the struggle to improve work conditions and defend the unions.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in the 1980s continued to oppress the labor movement, which led to the United Strike of Guro Industrial Complex in 1985 and eventually the Great Workers' Struggle in 1987.●

**전태일의 꿈 ② 노동 운동의 변화** 전태일의 분신 항거는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학생, 종교계 및 사회가 성명서 발표, 집회 및 농성, 추도식 개최 등의 방법으로 연대했으며, 노동 현장에서는 민주노조를 결성하여 노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전태일의 분신 항거 이후 노동 3권을 봉쇄하려 했으나, YH무역노조 등은 노동 조건 향상 및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기간 중 구로동맹파업 등으로 1987년의 노동자 대투쟁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3층 상설 전시실 '전태일의 꿈 ② 노동 운동의 변화' 공간.



전태일기념관 상설전 (전태일의 꿈, 그리고) 한글리플릿에서, 디자인: designLab 부렛.

© (Suryuanbang) Lee Jheeyung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3층 상설 전시실 '전태일의 꿈 ②노동 운동의 변화' 공간.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3층 상설 전시실을 지나 특별 전시실로 가는 통로 벽에 '태일피복' 도면이 그려져 있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3층 상설 전시실을 지나 특별 전시실 도입부로 가는 통로 벽에 '태일피복' 도면이 그려져 있다.

© (Suryuanbang) Lee Jhee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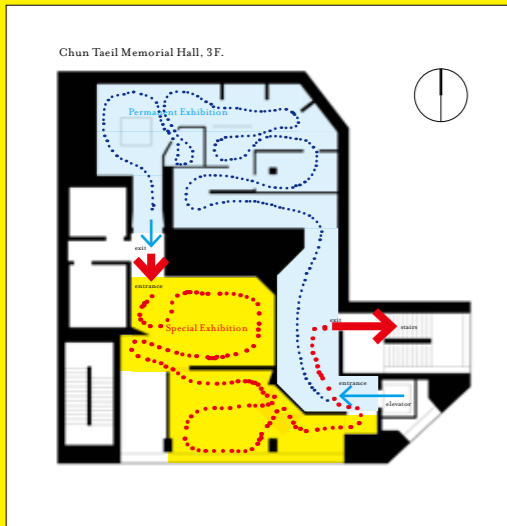


© (Suryuanbang) Lee Jeehyung

## 특별 기획전 [청계, 내 청춘, 나의 봄]



2020 전태일 50주기 특별 기획전 [청계, 내 청춘, 나의 봄] 도입부 패널 뒤쪽에 있는 '삼동회'와 '아카시아회' 구술 기록 영상 부분.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3층 꿈터의 특별 전시실(노란색)과 상설 전시실(하늘색). 상설전을 먼저 본 다음, 특별전을 보는 동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3층 특별 전시실 도입부 뒤쪽에 마련된 도서관 공간.



2020 전태일 50주기 특별 기획전 [청계, 내 청춘, 나의 봄] 도입부 패널 뒤쪽에 '삼동회'와 '아카시아회' 구술 기록 영상과 도서관 공간이 있다.

「전태일의 꿈 이어받은 십대 여공들... '피복노조'의 50년」  
[박지윤 기자, 『한국일보』 2020년 10월 15일자 17면]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청계천 변의 '전태일 동상' 앞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말하기 위해 거리로나선 청년들의 단골 무대다. 터무니없는 '푼돈' 임금에 미래를 저당 잡힌 이들과, 가진 자들의 이권 다툼으로 법 바깥으로 밀려나 버린 이들이 끊임없이 찾는다. 마이크를 잡은 이들은 그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제 몸에 불을 붙이고 죽어간 스물 세 살의 청년 노동자 전태일을 소환하며 '내가 이 시대의 전태일'임을 토로한다. 올해(2020년)는 그가 분신으로 생을 마감한 지 꼭 50년째가 되는 해다. | 모두가 기억하는 '전태일의 죽음' 이면엔 그의 뜻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모인 수 천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있었다. 당시 3만 명에 달하던 동대문 일대 봉제 노동자 중 80% 이상이 10~20대의 '여공'이었다.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13세 소녀가 미싱사를 보조하는 '시다'로 들어오기도 했다. 전태일의 분신 소식을 알음알음 전해 들은 이들은 전태일의 어머니 고 이소선 전 유가협(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초대 회장이 만든 노동자들의 동지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청계피복노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3층 특별 전시실 도입부 뒤편에 마련된 도서실 공간.  
벽에 유림빌딩 4층에 있었던 '노동교실' 평면도가 그려져 있다.

조'가 꾸러졌다. 『한국일보』 뷰엔(view&)팀이 전태일기념관 측이 최초 공개한 사진 및 『한국일보』 자료 사진을 통해 '노조하던 여공들의 삶'을 들여다봤다.

1960년대 여공들은 대개 '일하는 자'의 권리를 몰랐다. 동대문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 중 70% 이상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이들이었으며, 고등학교에 다녀본 이들은 단 1%에 불과했다. 허리조차 펴 수 없는 딱 한 줌의 자리에서 이들은 아까운 젊음을 축냈다. 기억이 남아 있는 유년 시절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공장 안에서 일생을 보낸 이들은 바깥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어찌 보면 당연했다.



[사진 1] [『한국일보』 자료 사진] 1970년대 봉제 공장 여성들의 모습. 1960년대 평화시장 다락방에서 일하는 공장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은 14~15시간에 달했다. 이 당시 급속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수많은 여성 공장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사진 2] [국사편찬위원회] 1960년대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 초등학교를 겨우 마친 채 들어온 여공들은,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돈을 벌었다. 공장 사장들은 나이가 너무 어려 다른 공장에서는 받아 주지 않는 소녀들에게 먹



© (Suryuanbang) Lee Jeeyoung

고賃 곳을 提供한다는 이유로 絶對적인 권력을 휘둘렀다.



[사진 3] [『한국일보』 자료 사진] 1970~80년대 봉제 공장에서선 여공들 대다수가 심한 먼지와 분진을 마시며 일했다. 공장 안은 어디선가 연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먼지가 뿌옇게 끼어있었다. 규모가 큰 공장은 그나마 나았지만, 특히 청계천 일대의 다락 공장들은 6.25 전쟁 휴전 직후 나무 판자로 영성하게 지은 곳들이 대다수였다.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화재가 일어났는데, 불이 나면 재봉틀만 들고 허겁지겁 강물로 피했다 되돌아오곤 했다.

여성은 언제나 가장 '싼값'에 부리는 노동력이었다. 이들은 1년 내내 아침 7시 출근해 밤 11시 30분을 넘겨 퇴근할 때까지 매일 16시간씩 일했다. 한 달에 휴일은 하루뿐이었으니, 주당 110시간씩 일을 한 셈이다. 엉덩이에 가위가 박힌 줄도 몰랐고, 다락에서 새우잠을 자며 일하던 미싱사들이 줄다가 바닥으로 툭툭 떨어지기도 했다. 그렇게 번 돈은 전쟁으로 풍비박산 난 집안 살림을 다시 세우는 데에 보태졌고, 오빠와 남동생의 학비로 들어갔다. 돈 있는 자들에게 1960년대는 봉제 공장 몇 년이면 '갑부'가 된다는 호시절이었고, 그 사이 무수한 여공이 빈혈이나 폐병으로 죽거나 쓰러졌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의 죽음을 목격한 여공 몇몇이 제 발로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씨와 그의 친구들을 찾았다. 이소선 전 회장은 아들의 유언을 받들어 "노조 결성을 허해 주지 않을 시엔 장례식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버텼고, 그 결과 11월 27일 '청계피복지부'가 탄생했다. 그 후 수많은 여공이 머뭇거리는 발걸음으로 노조 사무실을 찾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3층의 2020 전태일 50주기 특별 기획전 [청계, 내 청춘, 나의 봄] 중 첫 번째 공간.



았다. 어떤 이는 말없이 찾아와 전태일의 어머니를 꼭 안아 주었고, 어떤 이는 손수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판 돈을 '운영비로 써 달라'며 내밀었다. 봉지 가득 떡을 사 들고 찾아오거나, 사장의 눈을 피해 들러 수줍게 인사를 하고 가는 이들도 있었다.



[사진 4] [전태일기념관 제공] 평화시장 옥상에 만들어진 청계노조 사무실 앞에서 조합원 나성자, 이숙희, 이영순, 이광숙 씨가 일렬로 늘어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곳 청계노조 사무실엔 여공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사진 5] [전태일기념관 제공] 1975년 '새마을 노동교실'에 입학한 어린 여공들의 모습. '평화새마을교실'은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중등 기초 과정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줄지어 선 5명의 여공 모두 십대 중반~후반 정도의 어린 나이로 추정된다. 교실은 퇴근 시간 이후인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열렸지만, 수업 시작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3층의 2020 전태일 50주기 특별 기획전 [청계, 내 청춘, 나의 봄]은 가벽을 사이로 두 공간으로 나뉜다.

에 맞춰 퇴근할 수 있는 여공은 극히 드물었다. 일을 마치고 뛰다시피 달려온 어린 소녀들은 교실로 사용되던 좁은 노조 교실을 가득 채웠다.



[사진 6][전태일기념관 제공] 1975년 새마을 노동교실에서 개최한 '재단 수업' 당시 여공들이 직접 만들어 낸 옷들을 걸어 놓고 전시하고 있다. 재단 보조로 공장 생활을 시작한 남성 노동자들은 전문 기술자인 '재단사'가 되기 위해서 이 수업에서 기술을 연마하기도 했다.



[사진 7][전태일기념관 제공] 1975년 새마을 노동교실에 비치된 재봉틀. 이 재봉틀은 조합 소속 여공들이 재단 기술을 실습할 때 사용됐다.



[사진 8][전태일기념관 제공] 1975년 설날, 고 이소선 전 유가협 회장(아랫줄 검은 한복)과 청계 노조 여성 조합원들이 함께 찍은 기념 사진. 전태일의 어머니였던 이소선 전 회장은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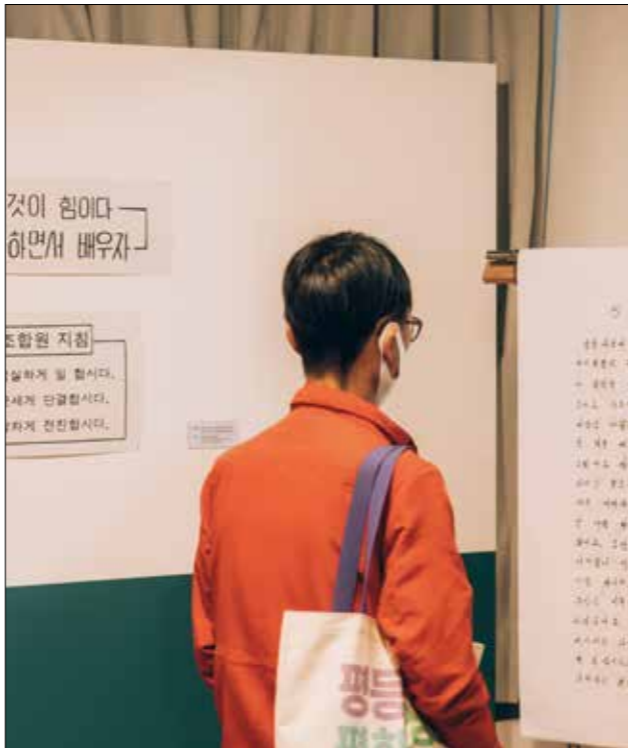
생을 노동 인권 운동가로서 청계천 일대 청년 노동자들을 두루 살피고 챙기며 살았다. 어린 나이에 공장일을 시작한 소년, 소녀들은 이 전 회장을 친어머니처럼 따랐다.

우여곡절 끝에 노조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노조는 강패 집단’이라는 공장 사장들의 악선전에 대다수 노동자는 가입을 주저했다. 일단은 ‘서로 친해지며 설득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다. 그렇게 여성 노동자들의 소모임인 ‘아카시아회’가 생겼다. 거기서 여공들은 처음으로 ‘일터 바깥’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났다. 함께 한문을 배우고 숫자를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었고, 여러 명이 힘을 합해 열 살이 겨우 넘은 어린 시다(보조원)들을 보살피기도 했다.

당시 공장장들은 여공들을 이름이나 직책 대신 ‘1번’ ‘2번’ 하며 죄수 부르듯 불렀다. 여공들은 자신부터 후배 시다들에게 높임말을 쓰며 일터의 문화를 바꿔 나갔다. ‘아카시아회’에서 함께 생각해 낸 아이디어였다. 고 이소선 전 회장은 중학교도 못 간 여공들을 위해 ‘평화새마을교실’을 열었고, 이화여대 학생들이 무급으로 국어와 역사 등을 가르쳤다. 이른바 ‘야학’의 효시였다. 7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열리는 강의에 200명이 몰렸다. 물론 제때 퇴근하지 못해 수업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태반이었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망’은 대단했다.



[사진 9] [전태일기념관 제공] 1970년대 ‘노동교실’ 3층 풍경. 유림 빌딩에 ‘노동교실’을 빼곡하게 채워 앉은 여공들이 중등 교육 과정 수료를 축하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깨우침이 늘수록 바꾸고 싶은 것도, 누리고 싶은 것도 많아



© (Suryuanbang) Lee Jheeyung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3층의 2020 전태일 50주기 특별 기획전 [청계, 내 청춘, 나의 봄] 중 ‘평화새마을노동교실’ 공간.



졌다. 사람을 기계처럼 부리던 1970년대, 여공들은 ‘존엄할 권리’를 말하기 시작했다. 더디게나마 임금이 올랐고, 저녁 8시 퇴근이 ‘상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신군부가 정권을 잡은 1980년대, 노조 간부들이 옥살이를 하고 조직이 해체되는 와중에도 청계천 여공들은 점조직으로 움직이며 활동을 이어나갔다. 면회를 가고, 영치금을 넣고, 모임의 명맥이 끊기지 않도록 끈질기게 서로를 불러 냈다. 노동운동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이들은 대부분 남성이지만, 좌절의 시대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이 여성 노동자들은 그 이름 뒤에 ‘숨은 주역’이었다.



[사진 10] [『한국일보』 자료 사진] 1980년 4월 평화시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청계피복노조 소속 여성 공장 노동자들.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 자살을 계기로 결성된 청계피복노조는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1981년 노조 해산 명령서를 받고 강제 해산된다. 머리에 흰 띠를 두른 채, 일터 밖으로 쏟아져 나온 여성 노동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줄지어 서 있다.



[사진 11] [전태일기념관 제공] 1972년, 전태일의 어머니인 이소선 전 회장과 청계노조 조합원이었던 이숙희, 신연옥, 박복실 등이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자락의 계곡에 앉아 있다. 쌍문동은 전태일 열사의 집이 있던 곳으로, 지금은 아파트촌



이지만 당시만 해도 숲과 묘지로 둘러싸인 변두리 마을이었다. 조합원들은 이소선 전 회장의 집을 ‘창동집’이라 부르며 자주 드나들었다. 스무 명에 달하는 이들이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노조 활동 계획을 세웠다. 이소선 전 회장은 떡 장사, 현웃 장사 등 온갖 굿은일을 하며 이들에게 밥을 먹였다.



[사진 12] [전태일기념관 제공] 야유회에 나선 청계노조 여성 조합원들이 파라솔 아래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이들은 휴일마다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 산에 올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전태일기념관이 공개한 사진 속, 이들의 모습은 밝고 명랑하다. 여름이면 땀띠 위에 먼지가 앉아 얼굴 가득 고름이 피고, 겨울이면 숨에서 나온 분진 때문에 기침을 달고 산 이들의 일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카시아회’에 오던 시간이었다. 난생 처음 생긴 친구들과, 난생 처음 봄꽃 핀 산에 나들이를 가서 찍은 사진들에선, 그들이 느꼈을 기쁨과 환희가 표표하게 드러난다. 싸움은 언제나 고되고 지난했지만, 나도 ‘존중받아야 할 귀중한 존재’임을 깨우친 그들의 얼굴은 단단하게 낙관적이다.



[사진 13] [전태일기념관 제공] 1980년, 청계노조 내 아카시아회원들이 모여 찍은 단체 사진. 사진 왼쪽 상단에 “애들아, 우리에게도 희망은 온다”고 적은 문구가 눈에 띈다.





[사진 14][『한국일보』 자료 사진]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전 회장이 2005년 9월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앞 버들다리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동상 제막식에서 아들의 얼굴을 본떠 만든 동상을 쓰다듬고 있다. 고 이소선 전 회장은 2011년 세상을 떠났다.

전태일이 분신한 뒤 50년이 지났고, 세상은 바뀌었다. 사문화된 법이 아니라, 피부에 닿는 법이 '최저 임금'을 정하고 '법정 근로 시간'을 엄격하게 책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답게 일할 권리'는 여전히 숙제다. 따라서 전태일은 아직 지나간 시대의 잊힌 상징이 아니다. 꿈을 빌미로 무급 노동을 강요받는 청년들과, 외주화된 위험에 내몰리는 청년들이, 오늘도 전태일과 여공들이 서 있던 자리에서 노동의 가치를 묻고 있다.●





© (Suryuanbang) Lee Jeeyoung

